

옛 스승이 전하는 '겨울에 오동나무에 꽃 핀 소식'

증생병고 치유 원력 도량 팔공산 동화사

팔공산에 단풍이 곱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벽 바람을 가르며 도학동 골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아홉 켤레 울긋불긋 산을 수놓던 단풍이 밤새 내린 비에 절반은 떨어져 버렸습니다. 물이 불어낸 계류는 우당탕탕 거침없이 흐르고 물기 머금은 오르막길에는 낙엽이 수북합니다. 단풍의 절반은 나뭇가지에 남아 가을을 지키고, 나머지 절반은 길에 떨어져 허망한 시간의 자국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더욱 애잔해지는 가을 아침입니다.

봉황문 앞에 차를 세우고 돌아서니 크직한 바위에 높이 새겨진 마에여래(보물 제243호)가 식전 맛바람에 달려 온 나그네를 맞이해 줍니다. 도톰한 얼굴과 단아한 앓음새가 객지에서 돌아오는 자식을 반겨주는 어머니 같습니다. 마에여래는 수인이 항마축지인 이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봐야 할 터지만, 예로부터 팔공산을 대표하는 신앙인 약사신앙의 주불 약사여래마에불로 통합니다.

이름이야 어떤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금강경>에서는 '불법이라는 것도 불법이 아니라 그 이름이 불법일 뿐'이라 했으니, 불상의 외양(外樣)과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겠지요. 원만한 신공과 두광, 선명한 영기문을 두르고 천년이 넘는 시간동안 거기 그렇게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마다 북과 덕을 나누어 주셨을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경내로 올라갑니다.

'팔공산동화사봉황문(八空山桐華寺鳳凰門)' 현판의 단단하게 곁이 다져진 글씨는 조선 후기 동화사에서 입적한 고승 기성당 패선(箕城快善; 1693~1764) 스님이 쓴 것입니다. 절의 이름은 9세기 중엽 심지(心地) 스님이 중창할 때 겨울에 오동나무에서 꽃이 피는 기이(奇異)를 보인에서 유래합니다.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의 '심지계조(心地繼祖)' 편에 나오는데, 심지 스님이 진표 율사로부터 영신 스님을 거쳐 이어진 법상종의 맥을 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출입금지 -행운유수(行雲流水)- 이 난야(蘭若)는 스님들의 수행공간입니다. 찬선수행을 위하여 출입을 금지합니다. 금당선원장'



동화사 비림의 인악당 비각

귀에 가득 물소리가 들려차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눈에 안내판 하나가 들어옵니다. 왼쪽으로 돌다리를 건너면 통일약사대불전이고 오른 쪽으로는 금당선원, 그 갈림길에 호법 신장처럼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안내판 뒤로 난 길옆에 당간지주(보물 제254호)가 서 있고, 그 뒤로 낮은 키의 비둘기 서 있습니다. 비각도 두 채나 있습니다. 동화사 비림입니다.

인악당(仁岳堂)이라는 현판을 단 비각 안에는 투박한 귀부와 사각의 갖머리를 한 오석 몸통의 비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대강백 인악의점(仁岳義沾; 1764~1796) 스님의 일생이 기록된 비석입니다. 전역은 '인악대사비명'이라 쓰여 있고 본문은 '부종수교 화엄강주 인악대사비명'으로 시작됩니다. '부종수교'란 종지를 받들어 교단을 지켰다는 뜻이고 '화엄강주'는 <화엄경>에 정통해 화엄학 강사로 이름을 떨쳤다는 뜻입니다. 인악당 의점 스님의 한 생애가 비문의 제목에 응축돼 있습니다.

조선 영조 22년(1746)에 달주(達州), 현재의 대구에서 태어난 의점 스님은 출가 후 선재동자의 구법행을 흠모하여 전국을 내 집처럼 다니며 법을 구하고 마침내 마음이 밝아진 뒤에는 여러 곳에서 후학에 '밝은 달빛'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비문의 한 대목을 읽어 봅니다.

"그때 영남과 호남의 여러 산에서 교화를 행하였으나 주지로서 설법하고 총체를 세우며 지혜의 칼을 견지한 곳은 팔공산으로서, 이곳이 바로 돌아가 멈춘 곳이다."

약사신앙 깊은 팔공산의 중심도량 법상종풍 이으며 증생구제 실천해

비림을 지나 50여 미터 올라간 곳에서 다시 '출입금지' 안내판을 만나고 그 안내판 뒤로 난 길을 따라 가면 오른쪽 숲속에 단정히 앉아 있는 한 기의 부도를 만납니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지대석과 기단을 깔고 팔각의 하대석과 중대석, 양련의 상대석이 놓이고 이층으로 된 고임돌 위에 팔각의 몸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양은 없지만 마루선이 깊고 치마폭이 살짝 들려 사뭇한 맛을 살린 지붕돌과 영기문을 새긴 연잎을 포개 올린 두 개의 보륜이 아름답습니다.

보물 제601호로 지정된 이 부도는 당초 동화사 아래 마을에 있던 것을 옮겨 온 것입니다. 양식적으로 볼 때 고려 초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인근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부도의 주인이 흥진국사(弘眞國師) 혜영(惠永; 1228~1294)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황상 옳다고 받아들여지지만, 문서 기록이나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흥진국사 혜영 스님의 탐미는 어디 있을까? 그 역시 비문은 전해지지만 베는 찾을 수 없습니다. <조선금속총람> 등에 수록된 비문이 있어 스님의 생애를 읽을 수 있는 것도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



혜영 스님의 비문은 '고려국 대유가동화사 주지 오교도승통 보자국존 증시흥진비명'으로 시작됩니다. '대유가(大瑜伽) 동화사'라는 구절은 동화사가 유가종 즉 법상종의 맥을 크게 잇고 있는 절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 본 심지 스님이 동화사를 중창하고 법상종의 정맥을 이었다는 종지의 연장선에 혜영 스님이 있는 것입니다. 동화사와 법상종의 관계, 법상종과 혜영 스님의 관계는 결국 하나로 집결되는데, 그 면모는 김훤(金暄, 1234~1305)이 지은 비명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 대목을 살펴봅니다.

자은종의 법상종지 자씨(慈氏)가 시조 오묘하운 그 진리는 알기가 어렵네. 최초에는 자비보살 전해 주었고 무학보살 연구하여 골수를 얻고 현장사와 규기 스님 널리 뵈으며 우리나라 동국까지 전하여 왔네. 철인(哲人)들의 상속 출현 계승하면서 우리 스님 전해 받아 팔조(八祖)가 되다. 국존계선 그 법통을 이어받아서 옛 스님과 비교해도 부끄럼 없네.

솔향기 그윽한 언덕에 이름표를 잃어버리고 서 있는 부도. 그 주인이 혜영 스님인 아닌 팔공산 자락에서 큰 법을 펼친 고승의 부도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스님과 비교해도 부끄럼

흥진국사 혜영 스님의 비는 못찾았지만 <조선금속총람>에 스님의 비문만은 남아

없네' 라는 찬탄을 받아 마땅하겠습니까. 오늘날의 스님들도 그 행적이 어디에 남든지 '옛 스님과 비교해도 부끄럼 없게' 살고자 초발심을 새로이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동화사의 부도밭은 동화문으로 들어오는 길 왼쪽 언덕 뒤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철문이 닫혀 있어 평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개방을 하면 등산객들이 출입하여 숲을 망칠 것이 염려 되어 출입을 통제하는 듯합니다. 할 수 없이 위쪽 암자 부근에서 좁은 내리막길을 통해 부도밭에 이릅니다. 부도밭 전역이 대구시유형문화재 12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울창한 숲속에 햇빛이 쏟아져 부도밭을 장엄한 단풍이 더 없이 아름답습니다. 크지 않은 능선에 층층이 단을 이루며 형성된 부도밭은 그야말로 적요의 범당입니다. 10여 기의 부도가 좌선하듯 제 자리에서 침묵의 단단한 결을 지키고 있습니다.

맨 아래 단에 봉황문 현판을 쓴 기성당 패선 스님의 부도가 있습니다. 정면에 '기성당대사지탑'이라는 표지석이 있어 바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패선 스님은 대웅전의 현판과 1732년에 제작한 <팔공산동화사사적기>의 서문을 쓴 주인

공이다. 그만큼 동화사에서 주된 활동을 하고 스승이라는 의미입니다. 스님이 남긴 <염불환향곡>은 지금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존되어 있는데, 시의 형식을 지닌 계송 6장 30편의 1150구로 이루어진 정제된 노래입니다. 각 구절은 8자로 되어있고 그 중 뒤의 4자는 한결같이 '아미타불'로 끝납니다. 앞의 4자는 선창이고 뒤의 4자는 후창으로 여러 사람이 염불 수행을 할 때 정묘하게 합창하도록 구성된 것입니다.

부도밭에서는 상봉정원(霜峰淨源; 1627~1709) 스님의 부도와 계영당 극림대사탑, 고운당부도, 성일당축족대사탑, 성암당해정대사탑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두 조선 후기 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동화사의 사격을 지키고 불조해명을 밝혀 온 스승들입니다. 부도는 모두 화강암으로 만들어졌고 높이와 조각이 드러나게 크거나 화려하지 않아 소박한 승가의 살림살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동화사의 앞날을 보고 싶으면 비림과 부도밭을 거닐며 사색에 잠겨보면 됩니다. 지난 시간의 흔적들이 돌보다 단단하게 다져진 그곳에는 옛 스승들의 지혜가 단풍보다 곱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겨울에 오동나무에 꽃 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글·사진=임연태(시인·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온열복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C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렛배가 냉하거나 손,발자신분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에게서 체험 후 좋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지주권매매, 오심건조, 요추베개등 자매제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상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중요합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인은 현분삼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상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중요합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인은 현분삼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